

2023년 11월 19일(주일) 제1657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오늘은 추수감사절

-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

-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진행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G.F.Händel의 Oratorio "Messiah" II·III 로 지휘 백경화 권사, 파이프오르간 전지희 집사, 챔발로 김진이 성

도, 팀파니 윤주일 안수집사가 담당하며 독창으로 소프라노 김은정, 알토 양계화, 테너 오영인, 베이스 나한유 선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20(월)-11.25(토) 새벽 5:00-6:00

지난 10월 8일(주)부터 시작한 2023 사명자대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내 안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기도드리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주일

찬양예배 시 장로 임직식 거행



백도환 안수집사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2년 전 우리에게 예배드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21일(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16대 장로로 피택된

백도환 안수집사의 장로 임직식이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됩니다.

백도환 안수집사는 서울강남노회 제30기 장로 임직자 훈련과정과 서울교회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장로고시를 통과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천안시 반려견 훈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20여 명의 학생들은 지난 10월 28일(토) 천안시 K-DOG 페스티벌 '반려견 훈련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애견관련학과 대학생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안정적인 반려견 컨트롤 능력을 보여준 최연주(최우수상), 김지수(장려상)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3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 서울시 강남구

### 이웃·친구들과 함께 하는 서울·비전나눔·음악회

2023. 11.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리클라세 (La Classe)

구본진, 윤승환, 황태경, 임용지, 오유석, 이세영, 김아라

지역 예술인

정윤석, 리브레티 중창단 (이선민, 오영희, 권대선, 최근우)

후원: 한국문화재단, 주회: 서울강남노회, 주교: 서울교회의원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손달익 위임목사

감사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핵심입니다. 살전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자세이며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의 실상을 보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염려와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감사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을 넘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처음에는 무척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들떴던 우리의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쳃바퀴[Hedonic Treadmill Effect]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겼어도 우리 마음은 금방 익숙하고 당연시해버리기 때문에 쳃바퀴 돌듯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기쁨과 감사의 쳃바퀴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기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가족들과 식탁에 마주 앉게 해 주신 것, 일터에서 땀 흘리고 정직한 소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 건강을 허락하신 것 등 순간들을 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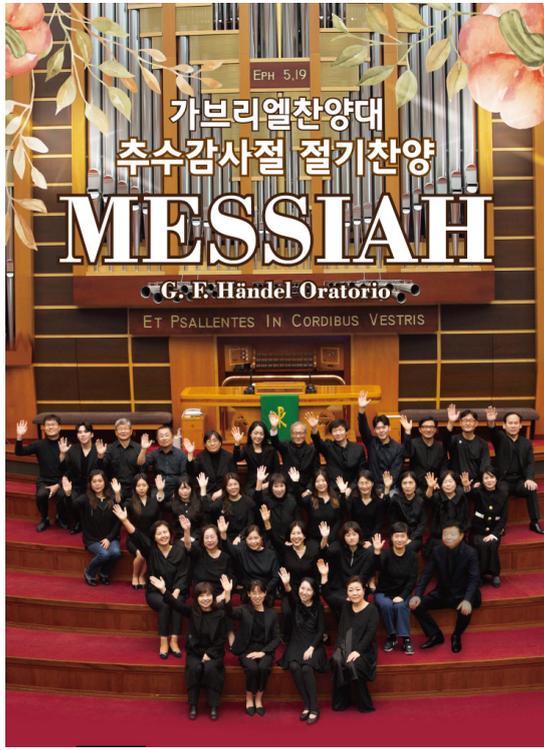
## 감사의 능력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웃과 성도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바벰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벰바 부족에는 특별한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규범을 어긴 부족 사람이 생기면 바벰바 부족만의 재판이 열리는데, 죄인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죄인에게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의 한마디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감사했던 것과 그가 행했던 착한 행실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를 도와줬지, 우리 집에 고장 난 것을 고쳐줬지' 등 그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고 재판에선 죄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공동체는 화합으로 결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축하하는 의미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감사하는 공동체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내적 결속과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과 삶의 자세가 우리의 더 풍성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이강인 장로**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여호와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 48:1)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극진한 찬양뿐입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색의 단풍과 풍성한 오크백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찬양대는 지난해 성탄절에 메시아 1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어 올 추수감사절을 맞아 메시아 2·3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이 담긴 헨델의 메시아는 성도된 우리가 1년 내내 불러야 할 귀한 노래입니다.

이 저녁 메시아 2·3부를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들으며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채찍 맞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이 새겨지고 찢기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므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찬양은 마침 백경화 지휘자와 함께 하는 가브리엘찬양대의 마지막 절기찬양이어서 대원들 모두 박찬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대원 한 분, 한 분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담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왔고 부활 또한 왔도다  
Hallelujah!"**

## 서울교회 HIIT 시즌2 사명자 대회: 예(禮)와 담(湛)



**김은석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안내분과)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서울교회의 하반기 신앙 훈련 프로그램인 사명자대회가 이번 주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지막으로 5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선교지와 세계를 위해 릴레이 기도에 힘써주시는

교인들께 준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학교에서 한자와 사자성어를 경험한 AZ세대라서 그런지, 유학적 배경을 가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뜻이 더 잘 와닿습니다. 우리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미국 연수기간 동안 인연을 맺었던 배요한 목사님(옥수동 신일교회 시무)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저는 두 분의 설교를 통해 배운 禮(예)와 湛(담)을 이번 사명자대회 훈련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기도,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그 기

도를 저는 너무도 쉽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해 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회에서 읽고 있는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본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개 인간인 왕 앞에서조차 성실함으로 직분에 충성하고, 수일 동안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는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 전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했나 생각했습니다. 진정과 기쁨이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와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주중의 새벽기도회와 수요일 배로 주일 대예배 때 주님을 뵈 준비를 하고, 저녁 찬양예배를 통해 사명자로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체비를 내년 한 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두 번째 훈련 목표는 위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도를 채우는 인생이 되기입니다. 기쁨 땀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화가 날 땀 억울함을 토로할 주님이 계심에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슬픈 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음에 감사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즐거울 땀 좋은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상황에 취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저수지에 기도를 채우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채움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신앙의 독에 구멍이 생겨 애써 담은 기도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의 독에 기도의 생수를 가득 채워 위기와 환난의 때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많이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든 동산의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훈련을 반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1년에 두 번 신앙생활의 HIIT(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인 흥해작전과 사명자대회는 소중한 서울교회의 전통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꾸준히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를 통한 기쁨이 쌓여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올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사명자대회 시간이 되기 위해 기도로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새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복된 시간이 다함께 열심히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아기학교는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 이수민 집사(5교구)



유준이는 엄마와 떨어져 혼자 유아부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교회에 가는 주일만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기학교에서 배웠던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등을 엄마·아빠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

는 모습을 보며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과 말씀을 통한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기학교는 아이가 성경을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준이가 하나님 말씀을 길잡이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넘치는 열정으로 아기학교를 이끌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3 성경암송대회

##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023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11월 11일(토) 일반부와 11월 12일(주) 교회학교 본선이 열렸습니다.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을 목표로 올해는 잠언 9장-16장이 범위였으며 1년 동안 개인별로 혹은 부서별로 성경을 암송하며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상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 성경암송대회 수상자>

#### \* 대상

- 일반부 개인:이미송 김진달
- 일반부 영어개인:노문환
- 유아부 개인:정윤우

#### \*사랑상

- 일반부 개인:박민숙
- 일반부 단체:전인숙 박혜정 정희자 박미정 양미숙 송미정 유미영
- 유아부 개인:오유준
- 유치부 단체:김병익 정혜슬 이하원 김서환 나연수 이다원 이유빈 류다현 유서아 차시은 백설아 우도윤
- 초등부 단체:김수아 유하연 유서연 윤서진



이운우 오승아 임시우 한세아  
현지은 옥유진

-고등부 단체:임하린 장유선 정은지 장해운  
김동욱 박유진 문은영 한상욱

#### \*믿음상

- 일반부 개인:한춘홍 장정화
- 유아부 개인:고승준
- 유년부 단체:길리배 김이환 오수빈 최아준 한세희 유다연 최은성 나호연 현이삭 유하민 정은채 정혜윤 권세준 최소윤 조하음
- 초등부 단체:김하윤 이소울 이예은 임세연

#### 조상희

-고등부 단체:박준상 윤동현  
정은채 문영은 손영희 박찬주

#### \*소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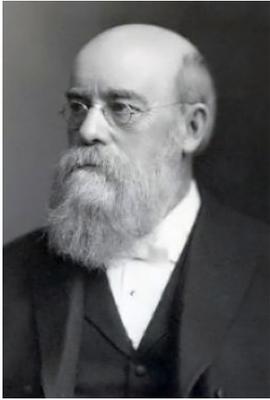
- 일반부 개인:박유진
- 일반부 단체:채교천 김승록 이민호 김영희 김총철 백도환 손태현
- 유아부 개인:박예원
- 초등부 단체:김울 이주호 임준우 김문범 김재령 소준
- 고등부 단체:임세아 이인애 김은송 채승호 김수연

####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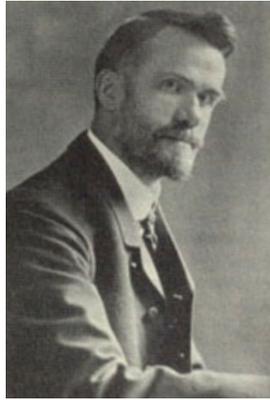
- 유아부 개인:최민성 최수아 오주빈 추시은 정윤하 백설현 김로하
- 중등부 단체:배은준 임하울 조건우 김지아 김하진 한예승 윤동원 정우성 김주아 오선아 오지훈 최민호 안준현 임하람 김서연 이시우 최지용 배은찬 주하은 최연수 노윤 김도윤 장유정 김성주 조연우 임라임 윤서현 장한솔
- 고등부 단체:김형준 한예준 윤서영 최연재 유성결



## 사회복음주의와 적극신앙단 사건



워싱턴 글래든 목사(Washington Gladden)



라우셴부쉬 목사(Walter Rauschenbusch)



신흥우 목사



함태영 목사



전필순 목사

사회복음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신학적 운동으로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의 기독교화를 꿈꾼 운동을 말한다. 당시 미국은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은 매우 심각하였다. 사회복음주의를 처음 천명한 사람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작사한 워싱턴 글래든(Washington Gladden)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문제는 다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자 종교적인 문제라며 교회가 사회정의의 세우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음주의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라우셴부쉬(Walter Rauschenbusch)는 죄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 안에도 죄가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양심을 무력화하고 악의 왕국을 더 크게 확장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악이 사회적이라면 복음도 사회적이어야 하기에 만약 구원이 단지 개인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사회복음주의는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때에 따라 사회복음주의를 수용한 이들과 교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갈등 중 대표적인 것이 적극신앙단 사건이다. 적극신앙단은 YMCA 총무인 신흥우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신흥우는 일찍이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한 후 귀국하여 배재학당 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20년부터 YMCA총무로 활동하며 YMCA의 농촌운동, 실력양성 운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추진

하였다. 또한 기호지역의 친 이승만 계 리더로 활동하면서 1920년대 대미 외교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평소부터 신앙의 실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1926년에는 기독교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의 목표는 ‘기독교의 민중화’와 ‘신앙의 실체화’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를 참가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는 한편,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로부터 독립한 한국인 중심의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1932년에 결성된 적극신앙단이었다. 적극신앙단은 주로 YMCA와 감리회의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함태영, 전필순, 최거덕, 권영식 등과 같은 장로회 목사들도 참여하는 초교파 신앙단체였다.

이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음주의의 성격이 강한 ‘적극신앙선언 5개항’과 ‘생활개선을 위한 21개조’를 제시하였다. 신앙선언의 5개항은 ‘하나님과의 일치, 남녀의 완전한 평등, 완전한 자유, 경제·문화·정신적 생활의 승등적(昇登的) 균형과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복음주의의 성격을 가지는 선언은 1930년대 여러 단체에서 발표되었다. 1930년에는 감리회 총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리적 선언’과 사회를 기독교적 이상 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조인 ‘사회신경’을 채택하였다. 1934년에는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사회신조를 발표하였다. 공의회는 공산주의의 과격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사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모습을 밝혔다.

감리회와 조선예수교공의회의 사회신경과 신조가 교계에서 무리 없이 수용된 것과 달리 적극신앙단의 활동은 큰 논란이 되었다. 이번에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장로회였다. 적극신앙단이 내세우고 있는 반보수주의, 반선교사 등의 기치는 장로회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결국 장로회 총회는 적극신앙단을 이단시하면서 참여하는 목사들의 면직과 신흥우의 YMCA 총무직 사임을 결의하였다. 결국 신흥우가 YMCA에서 물러나면서 적극신앙단 운동도 중심을 잃고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런데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적극신앙단이 나치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흥우는 1920년대 내내 친미적 성격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 미국이 걸으로는 정의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약소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나치즘에 빠져들었고 적극신앙단을 결성할 당시에는 이미 독재정치를 옹호하는 파시스트의 모습을 보였다. 애당초 적극신앙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히틀러전’에 나오는 ‘히틀러가 적극기독교를 주장하여 독일 민족의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읽고 얻은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신흥우는 히틀러의 운동방식을 채택했을 뿐 파시즘의 논리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옹호론도 존재하지만, 적극신앙단 전체는 몰라도 신흥우 개인은 파시스트의 일면을 보였다.

**득남**



- 7교구 임종현 집사·김양지 집사 득남 임원준 아기 11월 6일(월)  
(5교구 임훈규 은퇴장로·정경자 권사 손자)

**동정**

- 취임:8교구 서은석 장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 취임
- 대통령 표창:3교구 배홍기 집사(서헌회계법인 대표이사) 제6회 '회계의 날' 회계공로자



**식사·떡·과일 제공**

- 1교구 이우태 집사·박정희 권사 가정 (외손녀 주심 감사드리며)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 (오후 1시-2시)	수	전도회 (오후 1시-2시)	토	선교회 (오후 1시-2시)
		11.1	도르가, 루디아, 뵤뵤	11.4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5	자원자, 마리아	11.8	한나	11.11	바울, 엘리야
11.12	자원자	11.15	에스더	11.18	모세
11.19	자원자	11.22	리브가	11.25	이삭
11.26	자원자	11.29	권사회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11월20일	월	롬 6:1-8:30		11월20일	월	눅 1-4	
11월21일	화	롬 8:31-11:36		11월21일	화	눅 5-8	
11월22일	수	롬 12-16		11월22일	수	눅 9-11	
11월23일	목	고전 1-3		11월23일	목	눅 12-16	
11월24일	금	고전 4-7		11월24일	금	눅 17-20	
11월25일	토	고전 8:1-10:22		11월25일	토	눅 21-24	
11월26일	주일	고전 10:23-12:31		11월26일	주일	요 1-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23 사명자대회 특새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성도의 건강과 상황을 다스려 주소서.
2. 서울교회가 사랑과 섬김, 순종과 겸손의 영성으로 충만한 공동체되어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게 은혜 내려주소서.
3. 이 한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보살펴 주시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